



BEYOND HERE,
BEYOND NOW

비온드 12번째 여정

1 비온드 소개

2 발대식



3 스틸하우스

- 46호 전라남도 장흥
- 47호 전라북도 남원
- 48호 전라북도 순창
- 49호 경상북도 포항 북구
- 50호 경상북도 포항 남구

4 조별 / 팀별봉사

- 조별봉사
- 팀별봉사



5 국내 재능봉사

6 해외봉사

- 출정식 + 첫만남
- 조별 건축 봉사 + 교육 봉사
- 전체 헌정식
- 레크레이션
- 문화 교류 행사



7 Special Section

- 익명 인터뷰
- 운영진 인터뷰
- 내가 보는 너

8 에필로그 & 프로필사진



포스코 대학생봉사단 비온드

올해로 12주년을 맞은
포스코 대학생봉사단 비온드

01.

비온드(beyond)는 '넘어서' 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 바로 지금을 넘어 더 멀리 나아가자'
는 의미를 담은 포스코 대학생봉사단입니다.

2007년 창단되어
현재 12기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 나이, 전공, 성별을 불문한 100명의 대학생 단원
들은 약 8개월간의 기간 동안 지속적인 활동으로
배려와 봉사정신을 몸에 익히고 배울 수 있도록 기획
되었습니다.

비온드는 단원인 비온더, 선배 기수 비온더이자 운영의
역할을 하는 비온드 스템, 그리고 포스코와 해비타트의
실무진인 운영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스틸하우스 건축봉사, 재능 나눔
봉사, 포스코빌리지 해외봉사 등 국내외 지역을 방문하
여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봉사
의 경우 국내 비온더 100명과 현지 비온더 20명의 공
동 봉사와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비온드 단원 100명은 10개의 특성화된 역할 (조장/부
조장/디자인/홍보/영상/사진/문공/레크/지전/안전)과 10개
의 조가 존재해 단순히 100명 중 하나의 일원인 것이
아니라 한 조의 조원이자 역할팀원으로서 조와팀을 넘
나들며 두 가지 업무를 맡아 그물처럼 이어진 견고한
비온드를 만듭니다.

발대식

2018.07.04-06

2박 3일간 비온드 12기의 수많은 여정 중 첫 활동인 발대식이 광양 백운산 수련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만남과 앞으로의 여정에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100명의 단원이 처음으로 다 함께 모여 비온드 12기의 시작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2. 발대식

02.

첫째 날,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내 몸처럼 함께할 안전화, 안전모 등이 있는 **비온드 키트**를 받았습니다. 키트를 안고 비온드에 대한 소개를 들으니 새삼 단원이 된 사실이 실감이 났습니다. 8개월 동안 함께 할 조원/팀원들과 인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색함 속에서도 각기 다양한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레크레이션 시간도 가졌는데요, 조원들과 함께 단합하여 미션을 수행하면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어 또 하나의 추억이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비온드 단원으로서 처음으로 봉사하게 될 **스틸하우스**에 대한 각종 교육을 받고 스틸하우스 지역별 모임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지역의 홈오너 분들을 알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아무런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가 집을 지어드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에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beyond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 비욘드 12기 발대식

2018.07.06
장소: 광양 제철소

posco

한국대학교



마지막 날,

발대식을 하기 위해 포스코 광양제철소로 이동하였습니다.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리허설 진행 후 발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이루어진 발대식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12기 비욘드 단원이 된 것을 실감하였고, 앞으로의 8개월의 대장정이 뜨거운 열정과 기대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스틸하우스

국내 건축 봉사
2018.07.11-19

Unlimit the limit, 50번의 가능성
46호부터 50호 까지 뜨거웠던 비온드 12기의
스틸하우스 건축 봉사 이야기

03.

비온드 12기는 설렘 가득했던 첫 번째 발대식 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열정 가득한 모습으로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8박 9일간 **국내 건축 봉사**의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비온드 12기가 참여하게 된 국내 건축 봉사 활동인 스틸하우스는 화재 피해로 집이 전소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에 포스코의 WP(World Premium) 제품인 포스맥 (pos-MAc)을 사용해 내구성을 강화한 포스코 스틸하우스를 선물하는 프로젝트 입니다.

100명의 단원들은 지역별 2개조씩 나뉘어 전국 5개의 지역인 **장흥, 순창, 남원, 포항 남구 및 북구**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러 여정을 떠났습니다. 단순한 집의 의미를 넘어서 행복을 나누고 돌아온 비온드 12기 단원들의 이야기 들어 보실래요?

전라남 장흥

Steel House
46호
3조 x 8조



뜨거웠던 2018년의 여름,

스틸하우스 건축을 위해 3조와 8조 단원들은 공기 좋고 정이 많은 전라남도 장흥으로 떠났습니다. 시작은 설렘과 걱정이 공존했습니다. 버스로 5시간이 넘는 이동 시간을 거쳐서 비몽사몽 도착한 흙오너의 집터는 그저 황량한 공터였습니다.



건축봉사는 안전 관리팀원들이 준비한 체조와 안전 수칙 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기초가 되는 자재들을 다 같이 옮기는 작업을 시작으로, 서툴렀던 비온드 단원들은 현장에 적응해 나아갔습니다.

8박 9일 동안에는 정해진 과정에 따라 움직였는데요. 골조공사와 합판 공사, 단열재를 넣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외벽은 포스 맥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내부 타일 마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인트칠까지 진행했습니다.

도착과 동시에 시작된 새로운 일과는 모두에게 도전이 되어 앞으로의 스틸하우스 활동이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었지만, 함께 이기에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우리들의 웃음이 늘어날수록, 마법처럼 집은 완성되어갔습니다. 모두가 하나씩 차근차근 합쳐서 집을 완성했습니다.



사실 우여곡절도 많은 8일이었습니다.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 태양 별을 그대로 맞으며 진행되는 과정들에 적응하기란 상당히 쉽지 않았고, 아직은 서먹한 3, 8조 단원들과의 자리가 어색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로에게 적응했고, 순식간에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매 순간 서로를 배려하고, 챙기는 모습이 서로를 의지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모두가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봉사의 참된 의미와 우리가 해낸 일에 대해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흥에서의 특별한 일화

장흥에는 유난히 동물들이 많았기에 길고양이를 비롯한 주변 인가의 강아지들까지 작업 중간 중간 쉬는 시간마다 우리의 마을을 힐링시켜 주었습니다. 사람들을 경계하던 길고양이는 우리에게 마실 물과 햇볕을 피할 공간을 선물 받았고, 우리는 소중한 친구를 선물 받았습니



8조를 반으로
 나누면
 3조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다.

마을주민분들의 배려로 우리는 더 편하게 씻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들의 집을 기꺼이 내어주시며 세탁물까지 맡아주셨던 분들, 학생들이 고생한다며 손수 옥수수를 사 와서 삶아주셨던 어르신, 무더위쉼터에서 쉬시다가도 봉사가 끝나고 들어가면 힘드는데 쉬라며 바로 자리를 비켜주시던 어르신들까지 우리는 많은 분의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저희는 효도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암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노래하고, 마스크 팩을 씌워드리고,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며 감사한 분들과 소통하고 추억을 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헌정식

작업의 마지막 날에는 우리는 이 따뜻한 집의 홀모녀인 우재와 유미네 가족에게 헌정식을 통해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였습니다. 스틸하우스 기간의 단원들의 열정과 땀이 흙 파트너의 삶의 터전이 되는 희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헌정식 행사는 축하를 위해 마을 주민분들과 그리고 포스코와 기아대책, 장흥군 관계자분들이 함께하였습니다.

헌정식은 내빈분들의 축하부터 끈 커팅식까지 이어졌는데요. 그중에서는 밤마다 툼툼이 준비했던 단원들의 문화 공연과 그동안의 느낀 점을 담은 소감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모습을 통해서 많은 분께 받은 관심과 도움을 화답해 드릴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북 남원

Steel House
47호
4조 x 7조



4조와 7조는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총 8박 9일 동안 전라북도 남원에서 스틸하우스 건축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춘향이와 몽룡이의 사랑이 피어난 지역인만큼 4&7조 단원들이 남원에서 받은 사랑 또한 남달랐습니다.

첫날, 흙 오너 어르신은 컨테이너에서 거주하셨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흙 오너분을 위한 새집이 어느 집보다 따뜻하길 바라며 9일간 건축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건축봉사

한여름 땀별 아래에서 집을 짓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 일이었지만,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신 흙 오너 어르신들 보면 기운이 났습니다. 매일매일 달라져 가는 집의 모습도 지쳐가는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던 땅에 모든 이들이 하나 되어 벽체를 세우고, 단열재를 메우고, 외장을 두르고, 석고보드를 치고... 집짓기는 협동의 결정체였고, 열정의 산물이었습니다.



단순히 집짓기를 넘어 적절한 마을에 활기를 심어주고, 응원해 주시는 마을 어르신들께 즐거움을 드리하고자 춤을 연습하고, 효도 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봉사 기간은 하루도 빠짐없이 폭염 경보가 발령되었을 만큼 폭푹찌는 날들이었는데요.

저희 4조와 7조는 더우실 어르신분들을 위하여 우유 빙수를 준비하였습니다.



효도봉사

어르신 입맛에 맞을까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다행히도 모두 저희의 빙수를 좋아해 주셨습니다. 적지 않은 양의 빙수 한 그릇을 비우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 모두 뿌듯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또 좋은 솜씨는 아니었지만, 할머니들의 손톱에 화려한 매니큐어를 발라드렸습니다. 매니큐어가 마르는 동안 할머니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안마도 해드렸는데요. 손주, 손녀 같다고 저희를 진심으로 아껴 주시는 모습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헌정식

여름 햇빛 아래 만나질 땀 흘리고 나선 밤에는 헌정식을 위해 춤 연습을 하는 땀 흘린 일정이었지만, 마지막 날 헌정식 기념 공연을 할 때는 즐거웠고, 기뻐하시는 홈 오너 어르신과 즐거워하시는 마을 주민들을 보며 고단했던 마음도 가볍게 풀렸고 저희의 입꼬리는 하늘을 향했습니다. 마지막의 공연뿐 아니라 건축 봉사를 마무리하는 행사였기에 아쉬웠습니다.

살면서 언제 집을 지어볼 수 있고, 또 이 집이 누군가에게 큰 소망과 기쁨이 되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번 스틸하우스 건축 봉사를 통해 협동, 우정, 사랑, 효심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앞으로도 이번 봉사는 마음 한쪽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전북 순창 관장

Steel House
48호
5조 x 6조



5조와 6조는 전북 순창 건곡마을에서 스틸하우스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8박 9일 동안 20명의 비온드 단원들이 힘을 모아 소중한 집 한 채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강사님 소개와 건곡마을 이장님과 만났는데 강사님께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면서 항상 안전을 생각하며 일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장님께서 화재로 인해 집을 잃게 되신 홈 오너님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려주셨습니다. 순창지역 비온드 단원들은 그 사연을 듣고 모두 안타깝게 생각하며 8박 9일의 봉사활동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스틸하우스 봉사 기간 전복 순창에는 폭염 경보가 여러 차례 발효됐습니다. 지속된 폭염 속에서도 비온드 단원들은 성실하게 건축 활동에 참여했는데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 배려하며 일하다 보니 스틸하우스는 어느덧 집의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스틸하우스 완공을 며칠 앞둔 비온드 단원들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은 집이 곧 완공된다는 사실에 고무됐습니다.

이제는 비온드 단원 모두 전동드라이버를 능숙하게 다루었고 건축 현장에 익숙해졌습니다. 스틸하우스 봉사를 통해 비온드 단원들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8박 9일의 시간 동안 20명의 비온드 단원들이 서로 협력하며 일하는 과정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 건축 자재들이 조화롭게 모여 하나의 집이 완성되듯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비온드 단원들도 하나의 공동체로 변해갔습니다.



건축 봉사 일정 이후에는 조별로 모여 그날의 일을 돌아보고 서로 격려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 조장, 홍보, 디자인 등 열 개로 구성된 역할팀의 업무를 진행했는데 비온드 단원마다 부여된 자신의 역할을 책임 있게 다해내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효도봉사

스틸하우스 봉사활동 기간 모든 건곡마을 주민분들께서 비온드 단원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많은 응원과 지원을 받으면서 건곡마을 주민분들께 감사함을 느꼈고 지역사회를 위해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효도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비온드 단원들은 밝은 표정으로 어르신들을 맞으며 마스크팩과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바로 옆방에서는 할머니들을 위해 머리 염색을 해드렸는데 머리 염색을 받으신 할머니들께서는 아주 많이 만족해하시며 우리들이 와서 너무 좋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온드 단원들은 지역 봉사 시간을 통해 건곡마을 어르신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나눔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헌정식

헌정식은 비온드 단원들이 지은 스틸하우스를 홈 오너분들께서 양도받는 기쁜 날이었습니다. 비온드 단원들은 헌정식을 위해 안무를 준비했는데 이는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많은 건곡마을 어르신들께서 헌정식에 오셔서 함께 기뻐해 주셨는데 마치 스틸하우스 헌정식이 건곡마을 축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헌정식에는 포스코 사회공헌그룹, 남원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 스틸하우스 봉사활동에 도움을 주신 관계자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헌정식에는 홈 오너분의 소감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감사하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는 진심 어린 소감이 참석자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비온드 단원들은 헌정식을 통해 지난 8박 9일의 시간을 돌아볼 수 있었고 순창에서 흘린 땀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경북

포항

북구

Steel House
49호
1조 x 10조



7월 11일,
스틸하우스 건축 봉사를 위해 1조와 10조 단원들은
북구 기계면의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창박으로 펼쳐진 '스틸하우스 49호' 현수막과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우리가 정말 여기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설렘과 기대감에 부풀어 버스에서 내리며,
그렇게 우리의 특별한 8박 9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무더운 햇살 아래

땀이 마를 새가 없던 건축 봉사,

좁은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단체생활,
그리고 팀별로 주어진 과제들까지...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무색해질 만큼



매일 손빨래를 할 때도
일과를 마친 후 헌정식을
위한 춤 연습을 할 때도
팀별로, 또 조별로 회의를 하는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였기에
모든 순간이 즐거웠습니다.**



낮선 환경에서의 새로운 도전은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도
지치고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집을 쌓아 올리고 있다는
뿌듯함과 행복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늘 서로 배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조원들이 있었기에
힘든 순간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효도 봉사

기계면에서의 여느 아침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된 하루,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효도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화채를 먹으며
어르신들과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었고

준비했던 팩과 매니큐어를 해드리며
효도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비온드 단원들의 장기자랑이 더해져
흥겹고 단란했던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어르신들께 효도해드리기 위해
모인 자리였지만

비온드 단원들에게도
진한 여운을 남긴 하루였습니다.



헌정식

드디어 9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흠 오너 분께
집을 선물하는
헌정식을 가졌습니다.

매일밤 연습했던 공연도
눈물과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스틸하우스 봉사를 통해
느꼈던 이 벅찬 감정을
무슨 단어로 표현해야 할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오래도록 잊을 수 없으리라는 것,
그리고 이런 특별한 경험을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해서 참 감사하다는 것.

짧다면 짧았던 8박 9일,

흠 오너인 할머니는
집을 선물로 받으셨고,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경북

포항

남부

Steel House
50호
2조 x 9조



유난히 더웠던 이번 7월,

포항 대송면에 열정으로 뚝뚝 뭉친 비욘드 12기 2조와 9조 단원들은
스틸하우스 건축 봉사를 위해 모였습니다.

화재로 집이 전소된 흥 파트너인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위해 튼튼한
집을 지어드리겠다 다짐하며 9일간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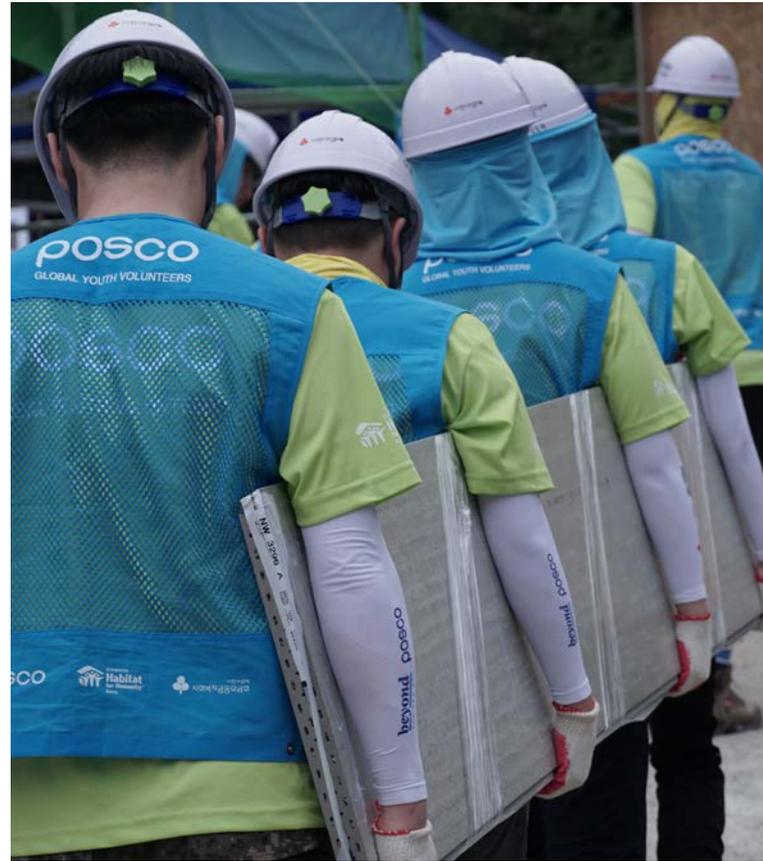


9일간의 일정은 단원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차례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었지만
단원들의 열정은 무더위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점차 끈끈해지는 관계 덕분에 일은 즐거워 졌고
바닥뿐이던 현장은 어느새
집의 모습이 갖추어 갔습니다.



오후에는 마을회관에서 효도 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어르신들께 시원한 안마를 해드리고
팩과 매니큐어, 염색 등의 봉사를 진행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과 함께 재미있는 율놀이까지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비온드 단원들을
손자, 손녀처럼 귀여워해 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효도 봉사는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뜨거운 날씨, 잠시 건축 현장을 벗어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우리는
오전과 오후를 나누어
벽화 봉사와 효도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오전에는 벽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비온드 단원들은 회색빛으로 삭막했던 시멘트벽에
오색 물감을 사용하여 희망을 그렸습니다.

하얀 벽 위에, 포항을 상징하는
호미곶 손 동상으로 시작하여
비온드 단원들의 손자국을 마지막으로
벽화를 완성했는데요,
벽 위에 활짝 핀 꽃처럼
홈 파트너 분의 미소가 활짝 피길 바라며
비온드 단원들은 벽화 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모두가 모든 것이 처음이었기에,
어색하고 익숙하지 못해 힘들었지만,
매일 함께하는 건축 봉사
레크리에이션, 공연 연습 시간을 통해
서로 친해져 일이 재밌어졌고
갈수록 일에 익숙해져 즐거운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무사히 스틸하우스 50호가 완공되었습니다.
항상 우리를 도와주셨던 운영진 / 스태프 분들 그리고
무더운 날 앞서서 수박을 잘라주시던 할머니, 강사님들 까지
모든 분들이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헌정식 마지막 날, 완성된 집과, 다함께 준비했던 달력, 사진 그리고 외부의 많은 분들이 준비해주신 가구들을 드리고 축하하는 헌정식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시간이었고 할머니께서 우리 덕분에 행복했고 집을 보며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눈물을 흘리는 단원도 있었습니다.

8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느끼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보금자리를 선물했다는 경험은 모두 잊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스틸하우스 활동은 끝났지만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별/팀별 봉사

2018.08-09

4. 조/팀별봉사

04.

포스코 대학생봉사단 비온드 12기는
8월, 9월 두 달간 조별/팀별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0개의 조와 팀은 '20대가 고민하는 우리 사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마다 다양한
키워드를 정하여 봉사를 기획 및 실천하였습니다.

* 10개의 팀 (디자인 / 홍보 / 지역전문가 / 안전관리 / 영상 / 사진 / 문화 공연 / 레크레이션 / 조장 / 부조장)

조별봉사



1조 청년 취업

9월 1일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여의도공원에서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청년을 위한 행사인 만큼 전국에서 온 다양한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고,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같은 '취업 걱정'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저희가 직접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것에서 힘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2조 노인 요양

8월 10일 효 마을 은평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각자 많은 봉사활동을 해봤지만 이번처럼 기억에 남을 봉사활동은 스틸하우스에 이어 두 번째라고 2조 모두는 입을 모아 말할 수 있습니다. 2조가 다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시행하니 활동 하나 하나에 우리의 정성과 진심이 어르신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면서 그 감동이 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조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자살 예방

9월 1일 운정호수공원에서 생명보듬페스티벌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조별 봉사활동을 통해 오랜만에 만난 조원들이 반가웠고, 조원들과 함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힘이 더해지면 우리 사회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노인복지 4조

9월 15일 관악 중앙데이케어센터에서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어르신들과 더불어 행복을 나누며 굉장히 의미가 깊은 봉사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루 쉬다 가시는 곳을 청소하면서 조원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말은바 열심히, 기획부터 활동까지 모두 함께하였기에 보람찬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5조

8월 21일 용산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작업보조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도와준 작업으로 인해 장애인분들이 다음날 작업을 쉬고 영화를 보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는 장애인분들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기관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으며 뜻깊은 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문화 문제 6조

8월 11일 아시아 언어문화연구소에서 다문화 동화책 홍보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해외 교육 봉사에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한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 중 하나인 다문화 문제를 다문화 동화책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과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7조 아동 양육시설

8월 31일 수원시 꿈을 키우는 집에서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놀이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순수하고 밝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저희가 그 밝은 에너지를 전해 받았습니다. 시키는 임무를 완수하는 일반적인 봉사과 달리, 팀으로서 봉사 기관 콘택트, 놀이프로그램 기획까지 직접 계획했다는 점에서 뿌듯함이 배가 되었던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느 때와 같이 우리 조원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적극적으로 임해주어 고맷습니다.



장애인 복지 9조

8월 12일 성문교회(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와중에도 10명의 조원이 모여 한 번씩, 한 번씩 활동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봉사가 어떤 것인지 더 깊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벽화봉사가 누군가에게 도움과 기쁨을 드리는 시간이었지만 결과물을 함께 만들며 오히려 저희가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받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8조 독거노인

8월 3일 서울 시립 성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뜻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도 시간이 흘러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8조는 이번 배식 봉사를 통해 음식을 나눠준 것만 아니라 서로 간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고, 땀의 가치를 알아주시는 어른들을 보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서 굉장히 값진 봉사였습니다.



안전관리 10조

8월 5일 살 곳이 물놀이장에서 어린이 안전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안전에 관해 관심을 가진다면 후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잘 알고 실천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아이들에게 좀 더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팀별봉사



사진팀 장애인 복지

9월 29일 대한민국 휠체어합창단/대학로 이음 센터에서 장애인복지를 주제로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창단을 상징하는 노래로 <장애인의 노래>가 있는데, 노래의 가사처럼 조금 불편하지만 불행하지 않은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합창 연습이 끝나고의 일정을 알려주셨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전국각지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혹시 대한민국장애인합창단의 공연을 보신다면 멋진 공연을 위해 수많은 연습과 노력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팀 다문화 가정 아동

8월 29일 서울 아시아 언어문화연구소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 지원을 주제로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천과 솜, 실과 바늘이라는 재료들에 영상팀 팀원들의 서툰지만, 애정 가득한 바느질이 더해져 예쁜 인형들이 완성됐습니다. 직접 봉사 대상자들을 마주하는 활동은 아니었지만, 정성을 쏟은 인형들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선물로 전달된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영상팀 모두에게 뜻깊은 활동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문화공연팀 실버 세대

8월 24일 아름다운 들 안에, 아름다운 실버 홈에서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문화공연팀답게 공연의 마지막은 스틸하우스 헌정식 때 준비하였던 '무조건'에 맞추어 춤을 추었는데 무엇보다 몸이 기억하고 있음에 깜짝 놀랐으며, 어르신들의 박수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간단하게 환경미화 작업을 하였고, 마지막엔 5가지 맛이 난다는 오미자차를 마시면서 봉사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산가족 레크레이션팀

8월 25일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제19회 광진 통일 한마당 행사에서 체험 행사 보조, 공연 및 무대 보조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사 내내 진행되는 다양한 공연과 행사들이 봉사하는데 즐거움을 더해 주었고 덕분에 지치지 않고 레크레이션팀 모두가 재밌게 봉사했습니다. 이번 팀 봉사를 통해서 봉사라는 것이 꼭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더욱 나은 내일을 위한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지역전문가팀

8월 21일 용산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작업보조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고, 설문을 진행하면서 각자의 삶에 관해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셨던 모든 주민이 따뜻하게 우리를 대해 주셨고 그에 보답하여 저희도 열심히 도우려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봉사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전문가로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었습니다.



다문화 문제 안전관리팀

9월 8일 구리시 육아 종합 지원센터와 구리시 체육관에서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의 헌신과 가족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봉사 당일 날씨가 상당히 더웠지만, 부모님들은 웃으며 아이들과 놀아주었고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저희는 친구들과의 식사는 자주 하면서 부모님과의 식사는 드물게 하는 것은 아닌지, 친구에게는 자주 전화하면서 부모님에게는 필요할 때 외에는 전화를 안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조장팀 아동복지(상담 치료)

9월 13일 은평구 서부 아동 상담 치료센터에서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같은 작업의 반복으로 지겹고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깨끗한 피규어를 가지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임했습니다. 후에는 모래 상담실에 쓰레기와 책상과 의자 등등 뒷정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발대식 이후 조장들과 처음으로 하는 비온드 활동이었는데 팀원들과 소통 하며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서 그것 또한 너무 좋았습니다



헌혈의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참여권장 홍보팀

9월 22일 대학적십자사 헌혈의 집 수원시청역 센터에서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더운 날씨에 열심히 홍보를 하는 저희의 모습에 많은 시민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헌혈에 참여하겠다는 말씀에 저희도 더 힘을 내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헌혈이라는 작은 나눔은 하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홍보 캠페인을 펼치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조장팀 어린이 놀이터

9월 8일 제6회 강동구 게내마을 축제 선데이파크 어린이 놀이터에서 보조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해외 건축 봉사 기간 중의 교육 봉사를 기획해야 하는 부조장으로, 그리고 함께 진행하는 조원으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설명을 할 시에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새활용(재활용) 디자인팀

9월 29일 서울 새 활용 플라자에서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작은 습관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버려지는 물건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에 방문하는 사람 중에는 어린이들이 많았는데 어린이들에게 새활용에 대한 인식을 줄 수 있어서 환경보호 인식 확산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봉사활동이었습니다.



햇벌이 따사로운 11월,

포스코 대학봉사단 비온드 12기 단원들은 순천 이정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바로 비온드 12기 단원들이 **광양시 진월면 이정마을**에서 국내 재능봉사를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된 이번 국내 재능봉사는 지역공동체를 리뉴얼 하는
프로젝트로 비온드 단원들이 다양한 역할을 분담하여 이정마을 전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국내재능봉사

리뉴얼 프로젝트 2018.11.09-12



5. 국내재능봉사

05

비온드 단원들은 총 여섯 개의 팀으로 이정마을 곳곳에 흩어져 **효도 봉사, 환경 미화, 도색, 벽화 작업** 등 다양한 역할들을 성실히 수행했는데, 기존에 자신이 소속된 조와 팀과 관계없이 새로운 재능봉사 팀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비온드 단원들과 함께 일을 할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백 명이 넘는 봉사자들이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자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힘을 모은 결과, 이정마을은 전보다 더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는 마을로 재탄생 했습니다.

이번 국내 재능봉사 일정 중에는 해외 봉사 문화공연을 위해 조별로 준비한 문화공연을 보여주는 시간과 ***SDGs**에 대한 부조장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비온드 12기의 국내 재능 봉사활동은 2박 3일이라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봉사 활동보다 풍성하고 보람찬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SDGs

지속가능 개발 목표 또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 부터 2030년 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다.

새롭게 비춰지는 이정마을의 새 모습

첫 번째로 마을 한구석, 먼지가 쌓여 이전 편히 쉴 수 없는 낡은 정자에 비온드 단원들은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밖을 내다볼 수 없는 창문, 여기저기 갈라진 바닥재까지 할 일이 많아 보였지만, 비온드 단원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인해 낡은 정자는 새로운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온드 단원들의 모습에 지나가던 이정마을 주민분들은 따뜻한 응원과 꿀과 감 등 맛있는 과일과 간식거리 등을 챙겨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정마을 주민분들의 따뜻한 시골인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을에 '활기' 를 칠하다

한편 이정마을은 낡은 마을 담벼락 사이에 두고 이웃들이 마주 보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타인지 쌓여있는 먼지와 사이사이 갈라진 틈으로 담벼락은 그동안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온드 단원들은 그곳에 청소와 페인팅으로 낡은 마을 담벼락에 활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기초 작업부터 흰색 페인트로 담벼락의 세밀한 부분까지 모두 구석구석 칠함으로써 전과는 다른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깔끔한 담벼락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손길과 열정으로 마을의 좁은 길이 화사하게 밝아졌습니다.

벽화로 마을의 입구에 생기를 불어 넣다

이번에 저희 비온드 단원들은 마을의 담벼락 중에서도 마을의 버스정류장이 있는 입구이자 얼굴인 벽에 디자인팀 단원들이 미리 시안을 준비하여 벽화를 그렸습니다. 벽화에는 전라남도의 이순신 대교, 섬진강 꽃 축제를 그려 광양을 한 폭에 담아냈습니다.

디자인팀은 이정마을에 도착하는 순간 벽화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사전작업으로 깨끗해진 하얀 벽에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돼서 본격적으로 색을 입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칠했하기만 했던 마을 입구의 담벼락은 우리 비온드 단원들의 손끝을 거치며 어느덧 하늘과 바다, 산 그리고 꽃밭으로 변함으로써 이정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지나가시던 어르신들이 너무 이쁘다며 좋아하셔서 비온드 단원들의 마음에도 활기가 가득 찼습니다.





함께 하여 함께 나누었던 순간들

마을의 정자를 고치고 담벼락을 이쁘게 칠하면서 마을의 생기를 되찾으면서 저희는 어르신들의 웃음꽃을 활짝 피우게 해 드리고자 효도 봉사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마을 어르신 봉사는 특별히 비온드 단원들과 포스코 임직원 봉사단이 함께하였는데, 우리 비온드 단원들은 더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해 떨어진 머리카락을 청소하고, 염색하시는 어르신께는 비닐 캡을 씌어드리며 말동무가 되어 드렸습니다. 포스코 웃음 나눔 봉사단과 함께 넘치는 흥과 끼로 트로트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모두가 어울리는 웃음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같이의 가치를 발견하다

이정마을의 활기를 되찾는 재능봉사를 마무리하고 부조장팀이 준비한 SDGs 교육을 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난 후라 단원들과 부조장팀 모두 피곤할 수 있었지만, 교육을 듣는 단원들과 부조장팀 모두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했습니다. 그렇기에 비온드 단원들은 SDGs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MDG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00년 un에서 채택된 의제로,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감소시키자는 범세계적 약속



넘치는 비온드의 '흥' 과 '끼'

SDGs 교육이 끝난 후 비온드 단원들은 해외 봉사에서 선보일 문화공연과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조도 빠짐없이 10개 조 모두 완벽하리만큼 맛있는 문화 공연을 보여주었는데, 공연에서는 비온드 단원들의 그동안의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온드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레크리에이션 시간입니다. 레크리에이션팀은 첫날부터 재능봉사를 마친 밤에도 열심히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하여 비온드 단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습니다.





재능봉사를 마무리하며

3일간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우리 비욘드 단원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국내 재능봉사 활동은 스틸하우스 봉사 활동과는 다르게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임에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비욘드 단원들이 마을 곳곳에 흩어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비욘드 단원들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 활동을 진행하면서 비욘드 단원들은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이웃의 따뜻함과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마을 어르신들께서는 비욘드 단원들의 활동에 하나하나 관심을 가져주셨고 아낌없는 격려와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는 저희에게 골과 감 등 간식거리들을 챙겨주셨는데 저희 또한 이정마을 어르신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해외봉사

2019.01.20-31

우리를 더 단단하게, 성장시키다
해외봉사 in 인도네시아 찰레곤

비온드12기 마지막 여정

06.

12기 단원들은 인도네시아 현지 단원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찰레곤에서 10세대를 위한 주택 건축과 현지 중, 고등학생의 교육 봉사 그리고 문화 교류 행사까지 무사히 마침으로써 더 단단하게 성장하였는데요, 비온드의 마지막 여정인 해외 봉사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photo by 문규호

2019
01.20

출정식

해외 봉사를 다짐하기 위해
설렘을 가득 안고 인천공항
에서 출정식을 했습니다.





2019
01.21

첫만남

새로운 만남을 짓다.

해외 봉사 첫날! 홈오너분, 현지 비욘드 단원들을 만나고, 주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건축 봉사를 통해 튼튼하고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집이 지어지길 기대합니다.



조별 건축/교육봉사



TEAM 1



건축 봉사

포항에서 시작된
1조의 열정은

인도네시아 친구들
우리 아감 루시와 함께

잊을 수 없는
10일간의 봉사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작업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할 즈음엔
현장 진행자인 예비와 통역을 도와주는 루시의 도움으로
진행 과정을 하나 하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이후의 시간들
은 맡은 바를 책임감있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튼튼한 집의 뼈대를 만들기 위해
철근에 철사를 묶고 또 묶고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시멘트와 자갈, 모래를 섞고 또 섞고



시멘트를 부을 틀을 만들기 위해 함께 톱질하고 못을 박고

점심시간을 잠깐 즐기다 돌아와서

다시 철사를 묶고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바르고 또 바르고
몸은 힘들지만 건축 현장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헌정식|

그렇게 며칠밤을 정신없이 꿈을 내다보니
어느새 한국에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어서

정든 사이트와 주민들, 아이들, 그리고 흠오너와 작별인
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머문 시간은 보름이 안되는 시간이었지만
정든 이곳의 기억을 잊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육 봉사|

인도네시아 학생들과는 열대우림 파괴의 위험성과 열대
우림 파괴를 막기 위해서 평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수업하고 토의 하였습니다.

친환경 소재로 만든 에코백을 자연물로 꾸미는 시간을
갖고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선서문을 서로 낭독함으로써
유익한 시간을 공유하였습니다.



TEAM 2 House #01



|건축 봉사|

가만히 앉아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인도네시아.

처음 가보는 그 곳에 집을 지으러 떠
난다는 것이 조금은 두렵기도, 한편으
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스틸하우스 건축봉사보다 힘든 일정
에 조원들 간의 갈등이 생기기 쉽다는
말에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건축현장에서의 우리는 '역시
비운드답다'는 말로 밖에 설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멘트 섞기, 철사 꼬기, 벽돌 쌓기 등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담당하여 진행하였고,
지칠 때면 '힘들면 쉬었다 하자'
'도와줄까?'
'Semangat(파이팅)'
'HATI-HATI (조심해)'
같은 말로 서로를 격려하며
흙오너를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갔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말과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신나는 노동요를 들으며,
또 지역 아이들과 짧은 인도네시아어로 소통하며 얻은 에너지로
부상과 이탈 없이 12일간의 건축 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헌정식|

각 조는 홀오너분과 건축 현장에서 개별 헌정식을 가졌습니다.

홀오너와 비온드 단원들, 그리고 많은 마을 주민들이 모여 헌정식을 빛내주셨습니다. 낯선 한국의 노래인 '무조건'에 맞추어 간단한 무대도 선보였는데요, 모르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모두 신나게 춤을 따라 취 주셔서 즐겁게 헌정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전문가 조원의 기획 하에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고 편지를 전달했을 때는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에 홀오너분 뿐 아니라 비온드 단원까지 눈물을 보였습니다. 한 단원의 건축 봉사 소감에서 말했듯, 자칫 아무 일 없이 지나가버렸을 8개월을 소중한 경험들과 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해 준 비온드가 정말로 고마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교육 봉사|

인도네시아에는 이제야 재활용이라는 개념이 조금씩 도입되고 있습니다. 500mL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필통을 만드는 활동을 했으며 이를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임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한지와 한국 전통 무늬 스티커를 활용해 각자의 필통을 꾸며 재활용을 넘어 '업사이클링'의 개념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TEAM 3 House #02

| 건축 봉사

인도네시아 칠레곤의 더위 속에 진행된 건축봉사는 3조 조원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었고,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해외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진행되는 봉사였기 때문입니다.



낮선 언어, 동네에 울려 퍼지는 기도, 우리 걸을 지나 다니는 닭과 염소들, 수직으로 내리쬐는 햇볕 등의 환경이 우리를 긴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긴장도 잠시, 우리는 함께하는 든든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인도네시아 단원 치트라와 주디, 홈오너 가족들과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던 헤루 선생님, 사만씨와 유디씨, 항상 우리를 격려해주고 통역을 해주었던 유피타, 그리고 배해원 매니저님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모인 하나의 팀이었습니다.





|헌정식|

완성된 집을 못 보고 떠나가는 아쉬움 속에서 우리는 흠오너의 가족들, 마을 주민들과 헌정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순간은 헤어짐과 더 열심히 할 걸이란 후회에서 나온 아쉬움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흠오너 가족들의 눈물과 우리가 봉사하는 모습을 매번 지켜보던 현장 인근 학교 학생들의 작별 인사 속에서 우리 조원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칠레곤의 무더위 속 우리가 했던 작은 일들이 흠오너 가족에게 희망찬 미래와 행복, 새로운 기적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교육 봉사|

3조는 SDGs의 12번째,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을 주제로 교육봉사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 발생을 대폭 줄인다는 목표에 맞춰서 재활용품을 활용한 한국의 전통 놀이를 학생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투호, 알까기, 제기차기, 딱지 치기를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도록 했고 우유팩으로 딱지 만들기, 복주머니 꾸미기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해서 단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한국의 민속 놀이에 대해 소개하며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알릴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TEAM 4

House #03



|건축 봉사|

비욘드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저희는 어느덧 비욘드 활동의 마지막 활동인 해외봉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더위 속에서 저희는 매일 열심히 건축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끈끈한 팀워크를 발휘해 왔기 때문에 무더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조는 홈오너분이 함께 참여하여 함께 집을 지었습니다.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서로에게 무엇보다 큰 원동력이 되었고, 힘을 얻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현정식

7박 8일간의 건축봉사가 끝나고 홈 오너에게 집과 집접만든 선물을 전달하는 개별현정식을 진행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홈오너와 홈오너 가족, 현지 단원들, 그리고 조원들과 정이 들었기 때문에 헤어지기 싫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홈오너께서는 스태프들과 단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홈오너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시간이 소중한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아쉬웠고, 아쉬움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육 봉사

해외봉사 4일 차 되던 날, 포스코 대학봉사단 비온드는 교육봉사를 진행하기 위해 마을에 작은 중,고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육봉사는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17개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수업을 준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조는 학생들이 환경을 파괴하는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을 사용하도록 에코백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교육봉사에 앞서 조원들은 '아이들이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까?'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이들은 먼저 저희에게 눈을 마주치며 인사해주고 웃어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저희가 더 활기를 얻은 느낌이었습니다.



TEAM 5 House #04

건축 봉사 🏠

2019년 1월 20일 추운 겨울 날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무더운 인도네시아로의 해외봉사. 비욘드 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봉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였기에 그 어느 때 보다 기쁘고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일찍 일어나 버스를 타고 집을 지으러 가면 흘린 땀방울 만큼 집이 지어져 있었고 언제나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쳐다 보며 부끄러워 했던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호감을 표시했었습니다. 날씨도 덥고 힘들었지만 모두가 항상 긍정적이었고 웃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매 순간이 서로에게 큰 힘이었습니다.





|헌정식|

헌정식 당일, 흠오너 분들의 눈시울이 붉어지셨고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진 단원, 혹여나 눈물이 날까 웃음을 잃지 않았던 단원, 그리고 그 때의 감정을 조금이나마 더 느끼기 위해 생각에 잠겨 있던 단원들... 날씨는 더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던 그 때의 그 순간의 감정은 그 어디에서도 쉽게 느낄 수 없는 값진 추억이었습니다.



|교육 봉사|

모두가 처음이었던 교육봉사였지만 처음인 만큼 준비를 열심히 하여 수업을 재밌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유곽으로 지갑을 만들고 부채에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하고 숲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OX 퀴즈게임 등 혹여나 싫어하진 않을까 했던 고민을 왜 했었나 싶을 정도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좋아해줘서 뜻 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TEAM 6

House #05



|건축 봉사

건축 봉사는 스틸 봉사 때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철사를 꼬아 집의 기둥을 만들고, 시멘트를 직접 섞어 벽면 벽돌을 한층 한층 쌓아 올리면서 점점 집의 형태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의 조그마한 보탬의 손길로 홈 오너분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헌정식|

9일간의 건축 봉사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손수 준비한 스킨자수와 포토앨범을 홈 오너분에게 드리며 헌정식을 했습니다.

간단한 춤을 홈 오너분에게 보여주고 조원 대표의 인사와 함께 홈 오너의 감사 인사가 있었습니다. 홈 오너분은 저희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에 저희는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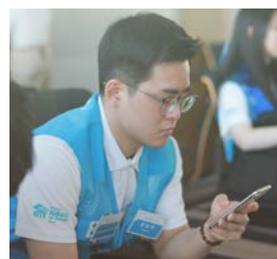
|교육 봉사|

멸종 위기의 해양생물들을 지켜주자는 주제로 해양생태계 동물 소개하기, OX 퀴즈, 멸종 위기의 해양생물들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기, 깨끗해진 지구의 모습 에코백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되고 당황한 부분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저희의 수업을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즐기며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메인 수업인 에코백 만들기 수업에서 아이들의 그림 실력은 상상보다 엄청나게 뛰어났습니다. 3시간의 짧은 교육 봉사였지만 수줍어하며 저희에게 다가오는 아이들과 정을 나눌 수 있었고 아이들에게뿐만 아니라 저희가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TEAM 7



| 건축 봉사 |

첫만남은 언제나 설레는 법입니다. 12일을 함께할 새로운 스태프와의 첫만남, 인도네시아 비온더와의 첫만남, 흠오너와의 첫만남, 그리고 이 모두가 함께하는 처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한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것은 흠오너 어른신께서 오랜 세월 안전하게 거주하셔야 할, 든든한 새 집이니깐요. 힘들고 지치더라도, 번듯한 새 집에서 함박웃음 한껏 머금고 즐겁게 살아가실 흠오너 어른신을 상상하면 기운이 절로 솟습니다.

섬세하게 섞은 시멘트와 모르타르를 깔고 발라 정교하게 수평을 잴 벽돌 벽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굳건히 서 있을 겁니다.





|헌정식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기 마련입니다. 남은 미련은 이미 고이 접어 저 하늘 높이 날려 보냈습니다. 저 아쉬움이 지붕에 쌓이면 공들여 지은 집이 무너져 버릴지도 모르잖아요.

이때만큼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입니다. 흠 오너 어르신들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벌써 끝이라는 안타까움과 헤어져야한다는 슬픔을 마주하게 되었지만, 흠 오너 어르신께서는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반죽하고 사랑을 쌓아 지어 올린 튼튼하고 멋진 새 집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봉사

혹시라도 유치하진 않을까 우리의 준비가 많이 미흡해 보이진 않았을까 걱정 반 설렘 반 두근대는 마음으로 입장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환호로 반겨주던 아이들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위한 소연극부터 창의력 대장들과 함께한 몸으로 말해요, 지루하진 않았을까, 손씻기 교육과 예술적 재능을 맘껏 꽃피울 수 있던 비누 만들기까지, 그 어떤 활동도 아이들의 웃음과 환호가 없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나 밝고도 당당하며 착하다 착했던 아이들이 벌써 그리워집니다.

TEAM 8 House #07

인도네시아 현지 비온더와 함께한 8박 9일간의 봉사활동
저희는 인니비온더 Ayu, Fiesta 와 함께했습니다.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서 처음 마주한 현장은 어지러웠습니다. 현장엔 그 곳을 자유롭게 오가는 닭과 염소, 어린아이들이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빠 까바르' 라고 소리 내어 인니 아이들에게 인사도 하고, 흥겹게 노래도 부르며 봉사 시간을 즐기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조금씩 집을 쌓아올렸습니다. 시멘트를 섞는 것도, 철사를 이용해서 골조를 만드는 것도 처음이었지만,



서툴고 느려도, 천천히 익숙해질 때까지 옆에서 알려주신 덕분에 모두가 함께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 장씩 벽돌을 전달하며 반복되는 작업에 지친 나날도 있었지만, 벽돌 사이에서 기어나온 지렁이 한 마리에 우리는 웃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힘들고 고된 일과였을 텐데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인니 비온더, 피스타(Fiesta)와 아유(Ayu) 덕분에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모두 함께 "파이팅!"이나 "스망앗!"을 외치며 서로를 다독였고, 역할을 바꿔가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헌정식|

8일간의 땀방울들을 기념하기 위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큰 도움은 아니었을지라도 우리의 노력이 그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길 바라며, 한 땀 한 땀 직접 수놓은 스킨 자수도 선물하였습니다

일과를 마무리하고, 고된 몸으로 열심히 준비한 선물이라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내내 곁에서 지켜보며 관심을 표현해주던 어린 친구들과도 아쉬운 작별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소중한 인연을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우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함께 선물하였습니다. 이들의 기억에서 오래도록 잊히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교육 봉사|

신재생 에너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필요성을 알리는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인니 비운더 친구들의 도움으로 현지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연극과 과학실험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현지 친구들도 집중해주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TEAM 9 House #09



건축 봉사

봉사에 대한 열정과 패기만으로 우리들은 건축 봉사에 도전했습니다. 10박 12일간의 해외 봉사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건축봉사가 1월 21일, 시작되었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웃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열정과 유쾌함은 현장을 넘어

주변 아이들까지 전파되어 봉사하는 내내 즐거운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처음엔 시멘트를 섞는 법도, 철사를 조이는 법도, 벽돌을 쌓는 법도 몰랐지만 천천히 배워가며 일을 했고 그렇게 벽돌이 높아질수록 그들의 또 하나의 추억도 완성되어 갔습니다.

한국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서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시간인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타인을 위해 봉사했지만, 봉사자인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의 순간이 의미 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현정식|

흠 오너 분들에게 집을 선물하는 현정식, 감동과 웃음이 현장에 가득했습니다. 그 감동과 건축봉사의 끝이라는 아쉬움에 눈물을 보이는 이도 있었습니다.

남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찼던 나날들, 그것이 더욱 벅차올랐던 날들 소중한 추억을 함께 해준 감사한 사람들,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교육 봉사|

단 하루를 위해 오랜 준비를 해온, 교육봉사. SDGs에 관련해 학생들에게 지식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즐겁고, 재밌는 수업이었고 현지 학생들과 함께한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하루뿐인 수업이었지만 그 의미와 여운은 며칠간 지속되었던 건축봉사 못지않았습니다.



TEAM 10 House #01

인도네시아 찰레곤에서
행복을 지어
추억을 남기다



건축 봉사

처음 보는 낯선 동네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두 번째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를 섞고, 철사를 꼬고...
반복되는 작업에 쉽게 지칠 법도 하지만
파이팅 넘치는 서로의 응원으로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힘든 일에 지쳐 때론 다투기도 했지만
비가 와서 질척거리던 땅이
마르면 단단히 굳어지듯이,
비가 잔뜩 내리던 날도 있었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이도
조금씩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헌정식|

열흘간 뜨거웠던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간.

모든 만남에는 당연히 헤어짐이 따른다는 것을 알지만
늘 모든 이별은 아쉽기만 합니다.

잔뜩 정이 들었던 마을 아이들과의 작별
인사로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고

행복으로 가득했던 작은 마을과
아쉬움 가득한 작별 인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의 첫 수업이어서
많이 서투르고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만큼 더 애뜻하고 소중한
하나의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교육 봉사|

〈물 절약 습관을 익혀 깨끗한 지구 만들기〉
라는 주제로
질레곤의 학생들 열두 명과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질문 상자 만들기
손병호 게임으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졌고

두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임에도
헤어짐이 아쉬울 정도로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beyond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 비욘드 12기 해외봉사

일시: 2019.1.20~31

장소: 인도네시아 쾰레곤

posco

Habitat
for Humanity
Korea

사랑의알뜰
봉사단



2019
01.29

전체 헌정식

이번 건축 봉사를 통해 다시 한번 희망을 선물하게 된 비온드 12기 단원들이 마지막 날에는 홈오너분께 우리의 마음을 헌정하는 행사인 전체 헌정식을 진행했습니다.

축하를 위해 홈 오너를 비롯하여 마을 주민들과 포스코 관계자 등 많은 분이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헌정식에서는 내빈분들의 축사와 비온드 단원들의 소감문을 통해 진심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학생들과 비온드 단원들 서로가 준비한 문화공연을 통해 소소한 재미까지 더해졌습니다.





레크레이션

소중한 추억을 만든, 레크레이션 시간
인도네시아 단원들과 우리가 함께 만든 12기
비온드로서의 마지막 추억, 즐거운 웃음과
함께 아쉬움도 커져만 갑니다.

레크레이션 팀원들이 열심히 준비해준 덕에
단원들의 웃음이 인도네시아 밤을 밝게 빛냈
던 시간이었습니다.



문화 교류 행사

Cultural Exchange Event



문화 교류 행사

2019
01.27

1월 27일, 문화 교류 행사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문화를 교류하는 행사로 인도네시아 4팀과 한국팀 10팀 콜라보팀 총 15개의 열정넘치는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1조 탈춤



2조 소고춤



3조 부채춤



4조 케이팝



5조 태권무



6조 기수단



7조 응원단



8조 스윙댄스



9조 꼭두각시&인연



10조 로컬팝



KOREA X INDONESIA



photo by 문규호



photo by 문규호

07. ■ Special Section

- 01. 익명 인터뷰
- 02. 운영진 인터뷰
- 03. 내가 보는 너

익명인터뷰 ?!

비온드12기 단원들의 속마음

01.

Q1

비온드 활동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무거운 벽돌을 나르고, 드릴로 못을 박으면서 언제 또 내가 이렇게 땀 흘리며 누군가를 위해 집을 지어볼 수 있을까란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홈오너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무더위에 땀 뻘뻘 흘리며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번 비온드 활동이 저에게 이런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을 계속 일깨워줘서 저를 더 성장시켜준 고마운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너무 사소해서 지나쳤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게끔 해준 생각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활동이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게 나눔을 베푸는 행위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신경써야 할 것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성취를 위한 일과는 달랐습니다. 마을 주민, 또는 홈오너의 평온한 일상을 만드는 데 큰 기둥을 세워드렸다는 생각을 하면 더욱 보람했습니다. 때로는 **말로 다하지 못하더라도 고마움과 사랑, 교감하는 순간의 행복을 처음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온드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목표에 심취해 너무 뻘뻘하게 살고 있지 않으나 되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베풀 수 있는 삶. **내가 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이 어떤 이에겐 정말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틸하우스 건축 봉사의 모토와 같이 한계를 뛰어넘는 활동이었습니다. 평소 건기조차 귀찮아 하는 저에게 건축 봉사는 체력의 한계, 정신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비온드는 제가 가진 **경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해 준 소중한 활동이었습니다.



한번도 언니오빠를 둔 적 없는 저에게 비온드는 스틸하우스와 문화공연팀의 28명, 그리고 그 이상의 **가족같은 언니오빠들을 만들어 준, 정말 고마운 기회**였습니다. 다른 대외활동, 다른 제 인생에서도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저게 비온드 활동 전체는 하나의 커다란 도전이었어요. 낮도 많이 가리고 내성적인 사람인 저에게 이렇게 100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은 일이었고,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죠. 벽돌을 나르고, 춤을 추고 모든 일이 처음이라 정말 많이 서툴렀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별 탈 없이 잘 마무리해서 참 뿌듯하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비온드 12기에 함께하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Q2

비온드 활동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Q3

비온드 활동을 회상한다면?

청춘드라마의 한 장면같이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기억될 것 같고, 한여름 밤의 꿈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꿈처럼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무더운 여름날 강렬했던 기억으로 남아서 돌아오는 여름마다 생각날 거예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조원들을 만나서 더 행복한 기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함께가 아니었다 라면 이렇게까지 행복한 기억으로 남지 못했을 거예요. 소중한 기억을 선물해준 우리 조에게 너무 고맙고, 제가 애정합니다♥



8개월이란 시간이 길었다면 길고 짧았다면 짧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8개월이 저에게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8개월 동안 건축봉사를 진행하고 조별 봉사, 팀 봉사, 해외봉사, 교육봉사, 벽화봉사 등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비온드 활동을 회상을 했을 때 **무수히 넓게 펼쳐진 밤하늘의 별처럼 기억 하나 하나가 빛나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Q4

비온드 활동을 하며 가장 감사했던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끝까지 함께했던 모두**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누구 하나 덜 고마웠던 사람이 없고, 다들 저를 따뜻한 마음으로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그 중 한 명만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태현 조장. 진정한 조장의 리더십과 그의 지휘력을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봉사, 교육봉사, 문화공연 등등 많은 일들을 8개월 동안 함께 고생해준 저희 **6조**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함께 한 **스태프님, 매니저님, 비온드 12기** 모두 고생했습니다.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지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어머니**였습니다. 비온드 활동을 하면 할수록 조건없는 사랑이 쉽지 않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받은 만큼 다른 이들에게 베풀자는 마음으로 활동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8개월동안 같이 지내면서 저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길수 있게 만들어주어서 **1조 조원들**에게 가장 감사합니다

비온드를 처음 만드신 **나영훈 포스코 팀장님**, 해외봉사를 와서 처음 뵈 분이긴 하지만 항상 에너지가 넘치셨고 친근하게 다가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비온드를 만들어 저에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옆에서 함께 고생해준 우리 **3조 조원들!** 고맙고, 또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인도네시아 비온더인 **치트라와 주디!** 짧은 기간이었지만 소중한 추억 만들어줘서 고맙고 나중에 또 볼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밝은 에너지 뽐으며 먼저 다가와 주던 **유피타**와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해주시던 **빠헤루, 사만, 유디** 그리고 묵묵히 뒤에서 우리를 봐주셨던 **배해원 매니저님**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8개월동안 싸우지 않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준 **순동이 2조 조원들**, 스틸 같이 갔던 **나라스텝과 염다솜매니저님 지수영 과장님**, 그리고 해외봉사 담당 스태프이었던 **성진스텝** 모두모두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10조**는 활동 중간에 조장과 부조장이 모두 나가고, 8명에서 활동을 이끌어야 했어요. 우리 10조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참 많이 배웠고,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너무 빠른 대답 같지만, 우리 **7조 조원들**이 가장, 제일로 고맙다! 나이로 따지면 많은 나이도 아닌, 그렇다고 적은 나이도 아닌 애매한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동갑인 친구들에게는 엄마라고 칭하며 잘 따라주어서 고맙고, 오빠들에게는 본인들보다 어린 동생이 조장을 맡고 조를 이끌어간다는 것에 걱정했겠지만 그래도 뒤에서 묵묵히 따라주고 의견 내주고 이해하고 배려해주어서 우리 조원들 모두에게 너무나 고맙다.

운영진 인터뷰

비온드12기 운영진의 이야기

02

매니저 인터뷰

Q1. 12기만의 특별한 매력은 무엇인가요?

노력으로 함께 일궈낸 다양성 속의 조화로움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100명의 청년들

한명 한명 캐릭터가 분명했던 12기 :^)

Q2. 12기에게 해주고 싶은 말

여러분과 지난 8개월 간 함께 할 수 있어 참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끼와 열정과 따스함이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행복함과 안도감을 느끼며, 매순간 보다 더 다양한 경험을 비온드에게 주고자 고민했던 시간들이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낸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았을 때 비온드 활동이 **젊음의 한 획**을 그은 소중한 기억이자 지속적인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큰 원천으로 남길 바랍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8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온드에서 작은 사회, 관계 그리고 **봉사의 가치**에 대해 배웠을 것입니다. 앞으로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꿈을 펼치며 살아가길 텐데 그 과정 가운데 비온드 12기 활동을 통해 배운 것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비온드를 **처음 지원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사회에 나가서도 꾸준히 남을 위해 돕는 **이타적인 세계시민**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주어서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비온드 12기의 마지막 일정을 활동 발표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비온더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어도 **젊음의 열정과 두근거림**을 기억하고, 항상 지금 이 순간을 넘어서는 스스로를 발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에 가까운 시간을 함께 하며 여러분이 **성장** 할 수 있었던 만큼 저도 모두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함께 해준 여러분이 너무 고맙습니다.



염다솜 매니저



김요한 매니저



정후 매니저

스텝 인터뷰

Q1. 단원으로 활동했던 지난 8개월 동안 가장 크게 얻은 것은?



홍나라 홍보스텝

평소 봉사활동 보다는 항상 저의 외부적인 역할에만 몰두 했었습니다. 하지만 비온드를 하면서 처음으로 저의 다른 역할이 아닌 온전한 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따뜻한 마음들과 함께 만드는 **행복의 소중함**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비온드는 저에게 **살아가며 행복을 나눈다는 것의 가치와 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김수지 문화스텝

대학 입학 후 이런 저런 상황들에 치여 열정과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있었어요. 하지만 **‘문화공연’** 역할을 맡아 조원들을 이끌어 함께 GV 무대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열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뿐만아니라 비온드를 만나 여러 봉사 활동을 하면서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나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성진 현장스텝

좋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들, 봉사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 등. 내가 겪은 이 점들을 12기에게 전달해주고 싶다는 점을 느끼게 된 8개월이었습니다.



김찬승 촬영스텝

우선 나의 시선이 아닌 **다른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점**인 것 같아요. 나는 괜찮지만, 나는 아무런 부족이 없지만 도움이 필요한 다른이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한 부분들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의 전환이 제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아주 큰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누는 삶에 대해, 이해하는 삶에 대해** 눈을 뜬것이 가장 달라진 점 같습니다



김병주 운영스텝

내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오랜 기간동안 웬만한 체력으로는 소화하기 어려운 건축 일정을 견뎌냈고, 멋드러진 결과물 또한 만들어냈습니다. 8개월 간의 대장정을 무사히,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얻는 것으로 끝낸것만으로도 **비온드 이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엄청난 자신감**을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Q2. 스텝으로 활동한 이번 8개월 동안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사실 스텝으로 활동하며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때마다 부족한 절 믿고, 격려와 응원을 해주신 **단원, 스텝, 운영진** 분들 덕분에 무사히 12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중한 인연**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고맙고 또 미안하다 전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마주치지 않았을 **소중한 인연들과 나의 모습**들을 알게 된 점에서 참 많은 것을 얻은 8개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는 나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스텝으로 봉사하며 분명 힘든 적도 있었지만, 단원들이 비온드를 통해 **나눔을 배워 성장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갈 때 제 자신이 더 행복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고, 단원들과 더불어 저 역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비온드 12기 스텝을 하면서, 8개월이라는 긴 활동을 하면서 성실하게 참여하는 우리 12기 단원들과 그들과 함께 달려온 **8개월의 여행**, 그로인해 우리가 모두 **성장**할 수 있는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떻게 해야 100명의 단원에게 보다 더 이해가 쉽고, 궁금증이 해소되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 할 수 있었던 점이요!! 특히나 아픈 단원 혹은 특이사항이 있는 단원들은 꼭 기억했다가 한번 더 체크하고 그렇지 않은 단원들도 다시 또 한번씩 체크하면서 **여러 단원들을 생각 할 수 있었던 경험**이 제게는 많은 것을 배우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주 보고 싶은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남는 건 사진뿐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전 사진보다 사람이 남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항상 수고한다, 고맙다 말해주신 **매니저님들**, 답변이 늦거나 내용이 조금 부족해도 감사하다고 해주는 12기 **단원들**, 그리고 11기도 함께하면서 더 나은 비온드를 위해 항상 같이 고민해 온 멋진 **스텝들**을 얻어가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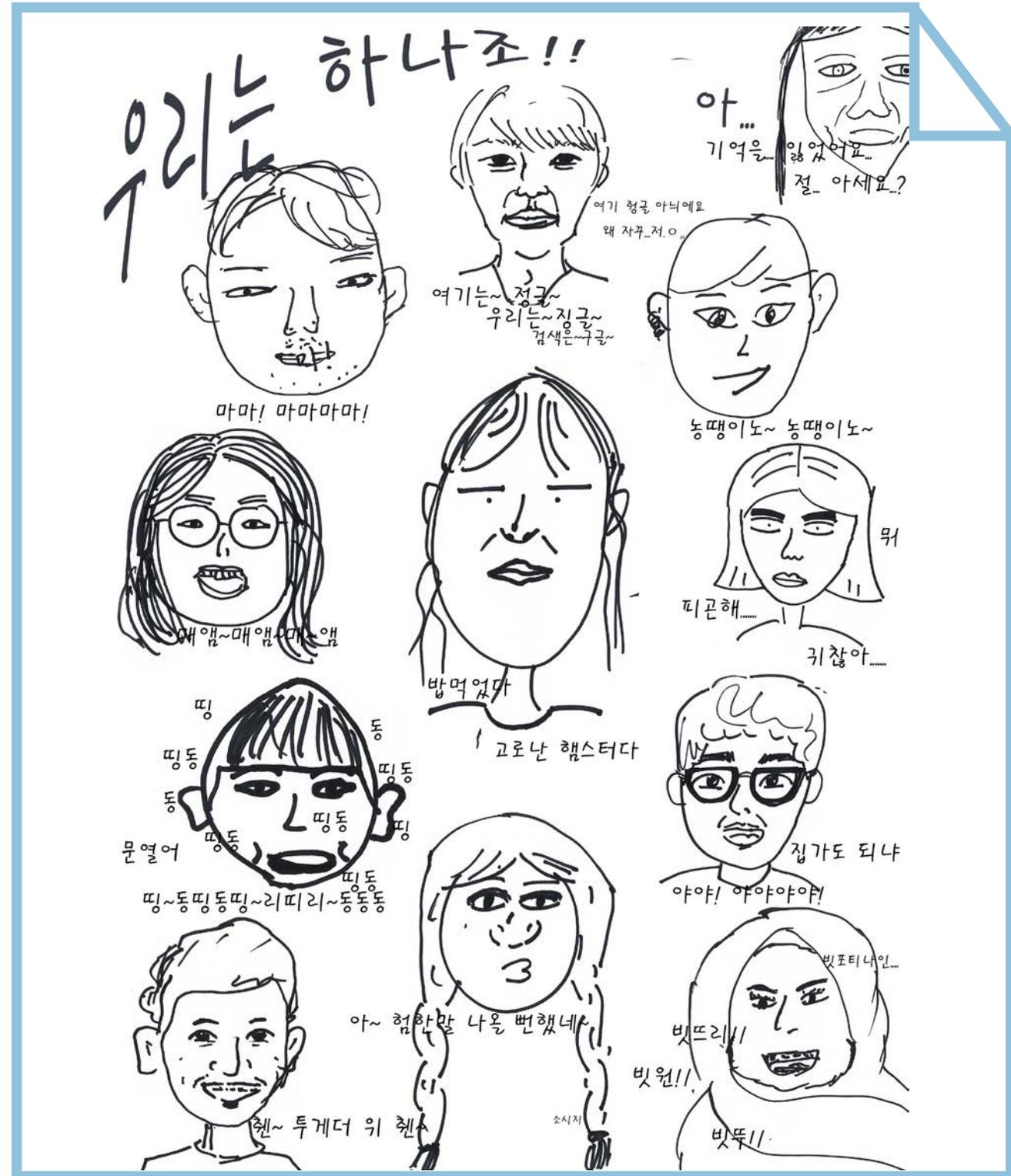
03

내가 보는 너

서로 얼굴 그려주기



1조



2조

지수 → Erina

Dina → 수빈

Erina → 유진

현철 → 진호

지영 → 한울

예술 → 장훈

수빈 → 예술

민석 → 현철

유진 → 민석

진호 → 지수

장훈 → Dina

한울 → 지영

**BEYOND HERE
BEYOND NOW
12TH TEAM #2**

3조

안전 관리다운 자기 관리

비욘드 대표 인싸 수빈

다들 언뉘...

I'm always rooting for you. Citra.

I'm worry with jaeun face

final five 그대는 마지막까지 최고의 리더 빠졌으셨다 ★

민기 넘치는 매력남

애슬이야, 애슬이야 따라따리따라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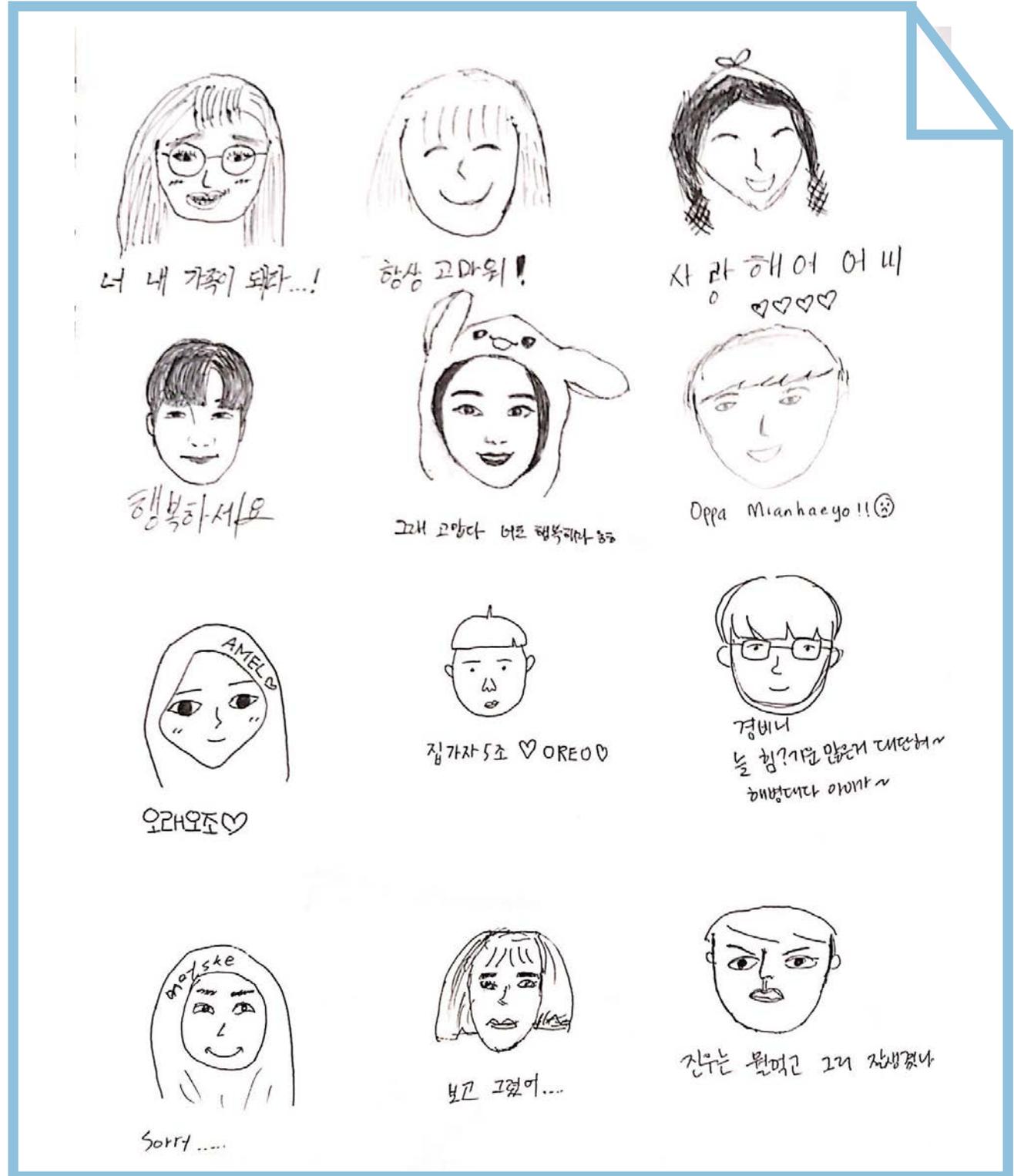
얼굴천재 김준영 인성도 훈훈한 그에게 없는건 무엇일까?

정현아 너가 3조라서 즐거웠어 우리 오래가자

4조



5조



6조



To. WOO JIN
From. EUN BI

My partner 우진
너 덕분에 인도네시아에서 버텨줄 수 있었어.
너 없었으면 난 말한마디 못했으니까..
고마워.. 하지만 스캔 내가 반한 거
안지? 너가 스캔 기 내가 치웠어...
이제 내 인생에서 스캔은 없으니까..
는 배려해주는 챙겨주는 덕이야 너와 고마워.
한글가사 수 간자라 ~??
(너가 사)



To. SEONG MIN
FROM WOOJIN

성민아 비욘드 처음부터 끝까지
형들 믿고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끝까지 레볼까지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해. 비록 6조가
70명에서 다같이 활동해 못했지만,
남아있는 시간까지 잘해서 너무 자랑스럽다.



To 정민
From 재권

항상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주셔서 고마워. 외바 덕분에 우리 작업이
영영임에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 항상 지금만 끝은 바랄게!



To. Nathan
From. YeonJoo

나만 터져 버리는 것만중에너지야
북대야마다 칭찬받았어~ 그 기쁨 안가고
싶다. 항상 웃고있고 밝은 나쁜 Seoul
National University 에서 만나고도
영내에 응대해 넌 항상 나의 라이벌!!!
해피아이리스 만나 나쁜 사람 Semangat!!



To. 민정
성민

민정이 누가 항상 열심히 할때 많이 도움줘서 감사해.
비욘드가 끝날 때 우리 선한 행을 응원합니다.



To. Eun BI
From Jeong Inoh

은비야, 다리 아픈데도 문해원, 권희까지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 정말 감사하잖아!!



To Nixi
From 혜지

니씨 ~ 항상 웃는 모습으로 열심히
차근차근해서 고마워요
우리 자주 연락하자
수고했어 ~ 스



To HYE JI
FROM 닥시

내 리더가 되어 줘서 고마워. 나는 내가 우리 팀의 어머니 같다고
생각해. 저녁에도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줘서 고마워. ♡



To: 더 J
L T
From: (Nathan)

안녕 하세요 누나. 만나서 반가워.
너는 위대하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에게 행운을 빕니다.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봐오. :)



To 재원
From 민지

재원아 ~ 아픈데도 해준 애들도 우리 작업해주고 고마워!
근데 재원 우연으로 너 간담도 챙겨줘야지...

7조



Always remember beyond
Love you so much!
< Sheila >



Da-Young
Uhm... who is she?
Really thank U for drawing
me good :)



Lee Ji-Hyun
<The Best Team Leader>
like Fox ^^ I like my caricature



Do
WoongJae

<The man who can't lazy,
I'm strong. I can move many brick



<Cho Min Kyung>
best Photographer
It's not me >> her better prcier



<Oh youngmi >
She's best dancer. From indonesia!
This is not me... Minhyung



<Hyung Moak > Sheila
You're the doctor of us!
I'm so happy to see your drawing!



귀여운
Dongju ~~~
So colorful... So beautiful



<Fathoni >
DJ of our site :)
Conca daehak & hyung.



She has good heart.



Woo Young
Go painter...
So... big... your... head

8조

별이 빛나는 어느 밤이면
괜히 시선을 머뭇머뭇하며
그리워할지도 모르지만 안났고
잊지 못할 추억도 많이
남겼습니다. 한여름 한겨울을 함께
보내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8
기형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I am
and here, beyond now. 고마워요!

8. 모든 일이 잘 풀리길... (아련)

you are beautiful !! :)

누굴 그리겠어?

한여름 밤의 꿈만 같던 그
사별의 우리들을 기억할게
안녕. 나의 스물여섯
안녕. Beyond.

못그리게 아쉽다. 사진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

8조
얼굴그리기

8월 한 달 동안 8회

길고도 짧았던 8개월 인생의
경험이었습니대!

피에스타. 항상 웃자! :)

필살아 잘하자~

Be smile gloryyyyyyy~ :)

노란색이 그려~

EMSO 44

9조

< Do Hyeon >
도나, 언제나 맨 몸 비 짜~
한모도 맨 몸만 갖기 말라!~
이모 3월요리 함께하러서 고마워!!

비 상은
등직한 Mr. Stone 선행이해 일산 77

< Ju Yeon >
주야 내 사랑... 3월 22일

< Yun Seob >
라이어트 생동하사.

< CHAEMIN >
손질 팜 77

< Young ho Na >
Good Boy =

< Seo Yeon >
서연이의 21살 응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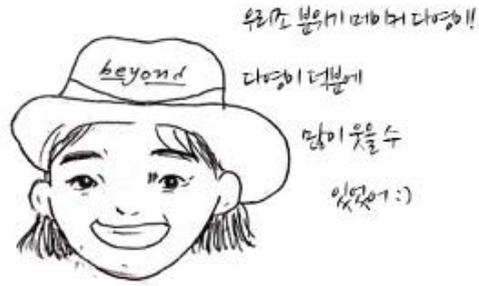
< wonjun >
순절은 ㄴㄴ

< Sang Eun >
언니. 8개월동안 만만니라서
9조 잘 지켜주세요 고마워 :)

< Jae Hyung >
재형은 마라 ver.
약대공주야 :)

Tia
I miss your smile and kindness.

1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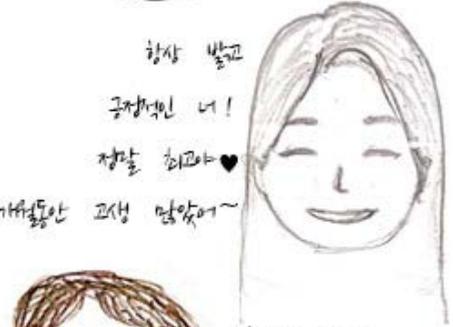
우린 조 볼위키 10대 대영!!
 대영이 덕분에
 많이 웃을 수
 있었어 :)



형 우리 꿈이던
 성공적으로 이끌어줘서 고맙고
 부산 가면
 맛있는 거 사줘요 ㅎㅎ



장우원이 오빠 덕분에
 10조 공신포로가 생겼지 뭐야...
 8개월 동안 고생했었고
 항상 응원할게!



항상 밝고
 긍정적인 너!
 정말 최고야 ♡
 8개월 동안 고생 많았어~



너무 똑같아서 놀랐잖?
 고생했었고 괴로워
 괴짜리!



스윗사이 돈지!
 함께해서 행복했어
 꼭 다시 만나는
 날이 오길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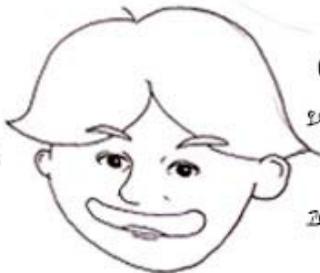
리튬이 풀만 사랑
 황현의 도둑질어 황현의
 그의 애착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자!
 네 마음을 볼 때마다
 모든 마음이 풀렸어 ㅎㅎ
 함께했던 모든 기억
 잊지 못할 거야



뜨거운 여름부터
 추운 겨울까지 항상 밝고,
 그런 너를 항상 응원할게
 인내해~



10조 든든한 조장님!
 오빠 덕분에 애환이 풀
 들었어 ㅎㅎ ㅎㅎ
 괴로워요 'u' 하하



08.

프로필사진 & 에필로그

TEAM 1

이동하
조장



우리 1조! 부족한 조장이었지만
우리 1조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앞으로 자주보자!

임성빈
부조장



많~이 배우고 갑니다. 고마워
요 비온드!!

경민서
홍보/SNS



함께한 시간 그 이상을 꿈꿀 수
있게해준 비온드
♥사랑해요♥

이동찬
디자인



1조 그리고 디자인팀 그동안 고
생했다! 즐거운 1년이었어! '모
여찬스' 꼭 쓰자!!

이수현
사진



뜨거웠던 8개월 :) 사랑합니다
비온드♥

이진아
문화공연



♥♥1조 문공 짱짱♥♥

서창우
레크레이션



소중한 인연들을 선물해준 비
온드♥

황성희
지역전문가



꿈꾸던 대외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나의 미래를 다
시 생각하게 해준 기회였어!

엄우용
안전관리



나의 2018년....24살의 기억은
너였다..1조..사랑한다...!ㅋ!..+안
전관리도!

agam
인도네시아 단원



Team 1 saranghae!! together
we can!! Thanks for memories

yuli
인도네시아 단원



I hope you guys will never
forget me and what we had
these days, team 1 사랑해!

TEAM 2

조한울
조장



푸른 하늘 밑 푸른 조끼 입은
우리는 모두 비운드였다.

이유진
부조장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외활동 비운드!
잊지 못할 거예요.

박현철
홍보/SNS



'함께'여서 가능한 '우리'

김지수
디자인



맑은 하늘, 더운 공기, 푸르른 우리

문수빈
부조장



사랑해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황애슬
홍보/SNS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최종오
디자인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김준영
영상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윤진호
사진



2조&사진팀
다들 너무 고생많았습니다♡

박지영
영상



잊지 못할 한여름 밤의 꿈

육장훈
문화공연



비운드12기 2조와 함께여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수빈
레크레이션



저한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준
비운드 정말 감사합니다

권자은
문화공연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박정현
레크레이션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김다슬
지역전문가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 곳은 넓지 않아서

최동은
안전관리



우리 결국엔 만나 오른다면

고민석
지역전문가



모두들 최고였다

임예슬
안전관리



예술이 빠지면 12기 존재하나?

Dina
인도네시아 단원



Glad to be part of our team,
we are the best!

Erina
인도네시아 단원



Always remember

TEAM 3

문수빈
부조장



사랑해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황애슬
홍보/SNS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최종오
디자인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김준영
영상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윤진호
사진



2조&사진팀
다들 너무 고생많았습니다♡

박지영
영상



잊지 못할 한여름 밤의 꿈

육장훈
문화공연



비운드12기 2조와 함께여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수빈
레크레이션



저한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준
비운드 정말 감사합니다

권자은
문화공연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박정현
레크레이션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김다슬
지역전문가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 곳은 넓지 않아서

최동은
안전관리



우리 결국엔 만나 오른다면

고민석
지역전문가



모두들 최고였다

임예슬
안전관리



예술이 빠지면 12기 존재하나?

Dina
인도네시아 단원



Glad to be part of our team,
we are the best!

Erina
인도네시아 단원



Always remember

Citra
인도네시아 단원



I'm gonna miss you so much

Zuhdi
인도네시아 단원



Thank you for all the things,
don't forget me.

TEAM 4

홍명
조장



힘들었지만 즐거웠다.

유재원
부조장



바쁘게 살아가던 나에게 비온드는
어둠 속 한줄기 빛이었다.

김진환
홍보/SNS



순식간에 지나가버린 시간,
아쉬움이 남는다.

강정은
디자인



휘황찬란했던 비온드 12기

이선아
조장팀



5조, 조장팀 사랑해♥

유윤희
홍보/SNS



다들 고생했어요! 특히 5조,
사랑합니다♥

류진우
디자인



어느 날 밤하늘에 별이 하나도
없다면 제가 다 따간 줄 아세요
비온드 12기에게 주려고.

손태철
영상



끝까지 함께 한 모든 분들
고마워요

이현정
영상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기억

정해운
문화공연



새로운 경험,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백종건
지역전문가



비온드를 통해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웠다.

김서현
안전관리



나에게 비온드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

임다경
문화공연



비온드 12기,
100개의 별이 되자★

한경빈
레크레이션



비온드 12기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좋은 추억 만들고 갑니다!

김보현
지역전문가



비온드 12기는 폭죽이다

윤재원
안전관리



여러분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Zikry
인도네시아 단원



The most memorable experience .

Dian
인도네시아 단원



It was a lifetime
experience for me

Farah
인도네시아 단원



My first volunteer trip.

천재민
부조장팀



오래 5조 & 부조장팀,
정말 수고했어! 고마워 :)

Amelia
인도네시아 단원



좋은 추억 고마워요
잊지 않을게요♥

Meyske
인도네시아 단원



꼭 나중에 봐요 다들 고마워요♥

이환서
사진팀



♥오래오조 오조오억번 조아해♥

TEAM 5

TEAM 6

TEAM 7

윤혜지
부조장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8개월이었다.

김성민
홍보/SNS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비운드는 나의 일이었다.

김민정
디자인



뜻깊은 기억의 선물
비온드 12기

오정인
사진



행복하자 비온드 12기

이지현
조장



우리 7조 8개월 동안 수고 많았어!

성우영
부조장



좋은 일 슬픈 일 함께하고,

신동주
디자인



항상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조민경
사진



좋은 추억도 많이 남겨서 행복해!

우연주
영상



영원하자 비온드 12기

이은비
레크레이션



사소한 것이 모이면 행복이 된다
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우진
지역전문가



힘들었던 만큼 성과가 있으리라
믿는다 비온드 12기

이재원
안전관리



함께 한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거야

오영미
문화공연



별 탈 없이 마무리 해줘서 고마워!

이동재
레크레이션



해단식 끝나도 7조는 영원한거 알지?

이다영
지역전문가



앞으로도 좋은 추억 많이 남기자!

원형묵
안전관리



고맙고 사랑해 7조!

Nixi
인도네시아 단원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겨줘서 고마워요.

Nathan
인도네시아 단원



비온드 12기는 저를 더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Thank you for making great
memories with us!



Until the day we' ll meet again,



We' ll always remember you,
beyonders!

TEAM 8

9 TEAM

이태현
조장



비온드 덕분에 많이 배우고 갑니다.

유채영
부조장



노인정에서 풀 좋은 추억 얻어갑니다.(먼산)

김영광
홍보/SNS



좋은 만남. 좋은 경험. 좋은 성장

이지우
디자이너



함께하는 모든 순간 행복했습니다.

김도현
조장



9조이자, 조장팀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랑합니다 모두들♥

김석원
부조장



많이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비온드

이주연
홍보/SNS



8개월동안 행복했어요!

지윤섭
디자이너



사랑해요 모두♥

한상필
사진



beyond korea!

이재원
영상



좋은 기회, 좋은 사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복현수
문화공연



너무 뿌듯하고 더 잘하지 못하게 아쉽습니다.

정수현
레크레이션



한편의 아름다운 드라마 같았던 8개월. 잊지 못할거예요!

박채민
사진



잊지 못할 추억 고마워요, 비온드!

나영호
영상



부디, 몸 건강하세요. 우리 오래 봐야 하나까!

이서연
문화공연



뜨리마까지 비온드!

장원준
레크레이션



비온드 12기! 모두 평생 연락하며 지내요!

김강희
지역전문가



함께할 수 있어, 사랑했고 감사했습니다.

유은서
안전관리



고마워, 우리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Ayu
인도네시아 단원



Be smile :)

Fiesta
인도네시아 단원



Be happy :)

이상은
지역전문가



위 아더 챔피언, 비온드! 에-오!

조재형
안전관리



행복했고, 즐거웠고, 좋았다! 아유!

Tia
인도네시아 단원



행복했어요, 모두. 다음에 또 봐요!

TEAM 10



한성혁
홍보/SNS

짚레곤 아이돌 데뷔 확정



김보경
레크레이션

12기 사랑했고, 사랑합니다.



황현민
지역전문가

8개월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현지
디자인

비온드~사랑해 'ㅅ'♥



김수미
안전관리

비온드 12기,
나의 21살을 함께해줘서
고마워요♥



박진은
문화공연

인도네시아를
뒤집어 놓으셨다.



곽다영
영상

♥곽다영 짱♥



이장원
사진

많은 것 배워가고
좋은 경험이었다.



Fauzi
인도네시아 단원

The most beautiful gift
because I have met
you guys :D



Febry
인도네시아 단원

You always can be kind!
CHEERS~!

STAFF



김수지
레크레이션/문화공연 스태프

항상 너의 행복을 위해 기도할게



최성진
안전관리/지역전문가 스태프

감사합니다사랑합니다



홍나라
홍보/디자인 스태프

진심으로 사랑해.



김병주
조장/부조장 스태프

지금껏 이런 대외활동은 없었다
이것이 봉사인가 직장인가



김찬송
사진/영상 스태프

여러분~대박터지세요~^^



김요한
매니저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



염다솜
매니저

수고 많았다 다시보자
비온드 12기!



정 후
매니저

잊지말자 사람도 기억도

진 사 제 제

조장



영상



부조장



사진



안전관리



문화 공연



지역 전문가



레크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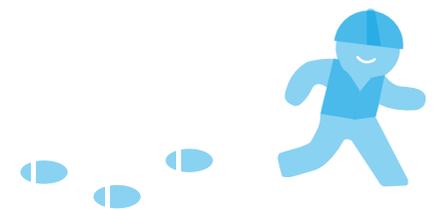
홍보 / 소셜미디어



매니저 / 스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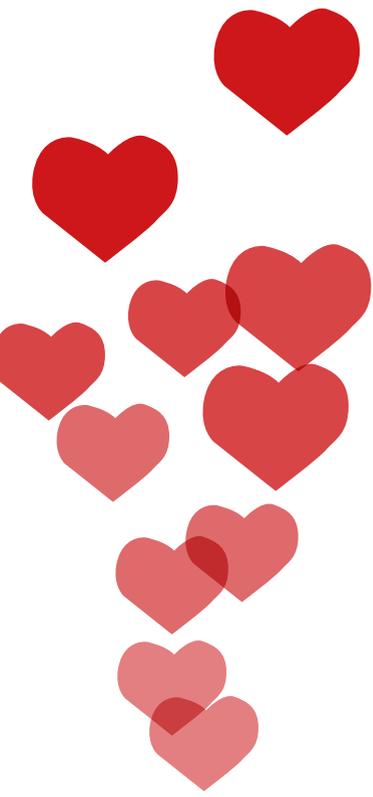


디자인



DOSOODOO

BEYOND



비욘드 하이라이트







8개월 동안의 여정은
비록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에필로그 by.디자인팀

현지 동찬 윤섭 지수 종오
지우 진우 민정 정은 동주

8개월동안, 우리 비온드 12기는 소중한 서로를 만나 불가능해보였던 일들을 성취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일을 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디자인팀은 활동보고서를 제작하면서 비온드 12기의 처음부터 끝을 담은 수 많은 사진들을 확인하고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시간여행을 떠나 비온드 12기가 노력했던 열정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진들을 모두 넣을 수 없어 아쉬움이 남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책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매번 바쁠 때마다 일이 생겼던 디자인팀, 우리의 마지막 과제인 활동보고서까지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부족했던 우리 디자인팀을 이끌어준 나라 스태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책을 받고 비온드 12기를 마무리하면, 우리는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현실에 놓인 새로운 일들과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 시간이 지나면서 비온드로 함께 했던 기억들이 서서히 잊혀져 가겠지요. 그러다가 문득 비온드가 생각날 때가 있다면, 이 책으로 우리들이 8개월동안 수 놓았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비온드,
비온드 12기로 활동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글 비온드12기 홍보팀 / 디자인팀

사진 비온드12기 사진팀 / 문규호 작가님

제작 비온드12기 디자인팀

